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

김 금 미* · 한 영 석**

초 록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 설정과 관련하여 남녀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 관점에서 양성평등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먼저 남녀간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히 접촉하여야 하는데 이 때 평등을 선호하는 사회규범이 전제된다. 또한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범주화, 교차범주화, 탈범주화와 같은 인지적 변화 방법들이 효과적이다. 이어서 사회적으로 상대적 지위가 높고 양성평등지향성은 낮은 남성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사회정체성과,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합법성과 안정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집단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남성의 합법성과 안정성의 인식이 성별사회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지향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남녀 대학생 760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지위 지각과 양성평등지향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남자 대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을 설명하는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합법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지향성이 높아지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을 포함하여 부합도를 알아보았다. 최종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대부분 .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다. 실증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성이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

*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있고,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지향성은 낮았다. 또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높은 현실이 합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양성평등지향성이 낮았다. 여성정책 마련과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중요한 결과들의 의의를 논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아울러 장래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안정성, 합법성, 사회정체성이론, 성별사회정체성, 양성평등

I. 서 론

1999년 2월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월에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여성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2002년 8월에 가정, 학교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할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2003년 2월에는 '재단법인 한국남녀평등교육진흥원(가칭)' 설립발기인 대회가 거행되었다. 이 곳은 향후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한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2002년 11월에 여성부(여성부 홈페이지 참조)에서 제시한 '21세기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앞당길 청사진'에는 2003년~2007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핵심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①정책에 남녀평등관점 통합 ②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③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④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⑤사회·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 ⑥평화·통일·국제 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⑦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⑧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⑨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⑩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사실 ①~⑨의 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⑩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이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부의 정책 방향과 더불어 남녀평등교육진흥원과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에 앞서 먼저 고려할 점이 있다.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부합되는 양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양성평등의식이 낮은 사람들에게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더욱 합의되고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⑩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여성부에서 설정한 세 가지 세부정책 과제, 즉,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남녀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제로 강의를 하는 한 개인(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으로서 혹은 실행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입안가로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하나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여성운동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하더라도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여성단체에 따라 성매매 문제에 관하여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매매춘의 한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내 일부의 의견은 대만이나 인도, 필리핀 등의 여성운동의 입장과 일관된다. 한편 우리나라 다수의 여성단체는 성매매 금지법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여성들이 같은 목표를 향하더라도 그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기존의 보수세력이나 권력층에 대한 ‘반대’로서의 사회운동은 존재했으나, 성문제에 대한 급진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내용화할지에 대한 논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www.demos.or.kr/issue).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도 과정에 관한 합의가 부족하다면, 목표는 있되 어떻게 목표에 접근할지 알 수 없으므로, 많은 인력들이 양성평등을 위하여 노력하여도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들이 남녀의 차이에 관하여 강의를 할 때 어떤 논조로 강의해야 할까? 남녀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거부해야 할까? 물론 강의 내용이 비슷할테고, 강조를 하든 안하든 현상으로써 성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성

차에 대한 강의자의 태도에 따라 수강자의 성차에 대한 태도와 그 후 행동이 달라 질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다른 논조로 강의를 할 때, 혹시 어떤 강의를 접한 남성들에게는 남녀차별에 대한 합리화나 방어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더구나 양성평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시민단체들의 관련 교육 최근 현황을 보면 실망스럽다.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연합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고, 참여연대에서 연 1-2회 실시되었을 뿐이다(www.demos.or.kr/issue).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조사에서 성희롱에 관련한 교육이 법제화된 이후로 ‘성교육’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양성평등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는 흔히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의 현실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합의도 매우 부족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에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사회정체성이론을 제안하고,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양성평등의식 및 행동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이에 관련한 실증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사회정체성이론

1) 사회정체성이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성역할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예 : 김득란, 1992; 정진경, 1990)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지니는 성역할 지각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즉, 개인차로서 남성이나 여성의 전형이 되는 성격특성이나 인지반응을 어느 정도 지니는지 측정하고, 이것이 여성성, 남성성 혹은 양성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이나 여러 후속 행동 및 결과들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차의 관점을 취하면 여성이 남성과 집단간 관계에서 여성이나 남성 전체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집합적인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김금미·한덕웅, 2001).

집단간 관계를 다루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인간이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통해서 자기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한덕웅, 2002 참조; Karasawa, 1991; Tajfel, 1982). 즉, (a)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회 집단의 성원으로 정의하고, (b)이에 근거하여 그 (집단) 특성들이 소속 집단 성원들에게 공유된다고 생각하며, (c)이 특징들은 다른 집단의 특징들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비교된다는 기본 과정을 제시한다(Ellermers, 1993). 즉 인간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한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자기 개념의 일부로서 획득하려는 욕망을 지닌다고 가정한다(한덕웅, 1995). 따라서 사람들은 긍정적 자기 평가를 선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하려고 한다. 이 때 개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동일시하는 집단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가 자기 평가의 주된 근원이 된다(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a).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집단 소속 의식과 집단간 관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Taylor and Moghaddam, 1987, 59쪽). 이 가정으로 보면

남녀관계에서 자신이 속한 남녀 집단의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행동을 사회정체성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아구조가 개인정체(personal identity)와 사회정체(social identity)의 두 가지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한덕웅, 2002). 이 가운데 사회정체는 성, 인종, 국가, 지역, 학과와 같은 사회범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니게 되는 자아정체이다. 사회정체성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Tajfel(1978 : 63)은 사회정체를 “자신이 사회집단의 성원이라는 지식과 그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및 정서적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자기 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나는 남성이다’ ‘나는 심리학과 학생이다’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정체를 사회범주에 동일시할 때 나타난다.

한편, 개인정체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규정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나는 ○○○다’ ‘나는 활달하다’와 같이 자신의 이름, 성격, 신체적인 특징 등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개인에 동일시할 때 나타난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개인정체로 동일시되는가, 혹은 사회정체로 동일시되는가에 따라 자아개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정체와 사회정체가 배타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에 위치한다고 생각했다.

정리하면, 사회정체이론(Tajfel and Turner, 1986)은 상대적인 개인정체와 집단정체의 동일시 정도에 따른 사회범주 과정에서 내집단-외집단 구별이 생긴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이나 범주와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고 그 결과 내집단을 편애하게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대인간 과정에서 내집단 분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집단 분류가 대인간 과정에 선행한다는 점이다(Brewer and Miller, 1996).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볼 때, a) 같은 집단성원이라도 대면 상호작용이 없었고, b) 누가 내집단 성원인지 외집단 성원인지 알지 못했으며, c) 특정인에게 돈을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분배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Forsyth, 1990 : 396; Brewer and Miller, 1996 : 79) 최소집단 상황에서도 실제 생활범주에서 나타나는 내집단 편애와 집단간 차별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로 구별되는 두 집단에 속한다는 단순한 지각, 즉 사회범주화 자체만으로 내집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집단간 차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한덕웅, 1995). 즉 대인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서 내집단 분류가 일어나기보다는 내외집단 범주화가 내집단 편애에 선행된다고 본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적용하여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나뉘어져서 다르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내집단편애, 즉 남녀차별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 집단간 차별과 자존심간의 관계를 측정하려고 시도한 실험상황에서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피험자들이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편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결과를 얻었다(Messick and Mackie, 1989). 따라서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려 할 때 가장 명심할 일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기 시작하면 ‘차별’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이 점이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과 여성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하다.

2)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손상되어서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본다. Tajfel과 Turner(1986)는 이 조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회정체성의 관리전략을 다음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행동 전략에 해당하는 ‘사회적 이동’은 지위가 높은 집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전략이다. 개인인지 전략에 해당하는 ‘개인화’ 전략은 개인정체성의 차원에서 정적 자기 평가를 얻고자 할 때 나타난다. 집합행동 전략인 ‘사회적 경쟁’ 전략은 소속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인지 전략인 ‘사회적 창조’ 전략은 소속 집단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집단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외집단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일컫는다.

내집단이 부정적 사회정체성을 지니는 상황에서 사회정체성의 관리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Lalonde와 Silverman(199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을 의미하는 침투가능성(permeability)과 특

출성에 따라서 상황도피, 상황 수용, 재평가 요구, 집단항의 가운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특출하면 다른 전략보다 집단항의가 더 나타났다. Jackson, Sullivan, Harnish 및 Hodge(1996)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지위가 낮아서 부정적 사회정체성이 높으나 개인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개인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이동이 사용되고, 불가능하면 집합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창조전략을 사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들로부터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관계처럼 남녀 관계에서 물리적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창조 전략이나 집단 항의 같은 집합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전략이므로, Tajfel과 Turner(1986)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경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보다 지위가 높은 남성의 입장에서 이와 일관되게 보면, 양성평등지향성이 덜 나타날수록 남성들의 사회적 경쟁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Ellemers, Spears 및 Doosje(1997)의 연구에서는 집단몰입과 개인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으로서 내집단범주화 요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사회정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정적 사회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적 경쟁전략을 더 사용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경쟁 전략 가운데 사회적 경쟁을 다루는데, Blanz, Mummendey, Mielke 및 Klink(1998)에 따르면 이 전략은 집합행동전략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다루므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집단 지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성평등지향성은 더욱 낮아진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으면 양성평등행동이 더욱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다 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남성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저해하는 양성평등지향성은 낮아진다고 보았다.

3) 양성평등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그렇다면 양성평등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양성간의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집단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남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남녀평등의식 교수원들이 실제로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거나 구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집단간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처음 제시된 방법은 집단간 접촉을 증가시켜 편견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었다. 인종갈등이 격화되었을 당시에 미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이 실시되고 있었고, 인종간에 접촉을 증가시키면 인종에 대한 편견과 편협함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으나, 실제로 여성과 남성처럼 접촉이 빈번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흔하게 발견된다. 이에 따라 Allport(1954)는 접촉만으로는 집단간 조화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음의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두 집단들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간에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유인이 되어야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Cook, 1978). 셋째, 집단간 갈등을 없애는 제도에 대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즉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의존적인 긴밀한 접촉을 하고 또한 그 사회의 규범이 평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만 비로소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김혜숙, 1999).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었지만(Hewstone and Brown, 1986; Pettigrew,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은 접촉가설의 효과와 그 효과의 제한점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Miller and Brewer, 1984).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집단간에 접촉하여 외집단에 대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Byrne(1971)의 주장과 같이 집단간에 매력에 생기는데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Brown, 2002). 이 생각은 외집단을 알게 될 때 집단간 동질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태도 일치가 집단간 호감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그런데 집단간 접촉을 통해 '집단간 동질성'이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가장 친밀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부간에도 서로 비슷하기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나 부정확한 지각보다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집단간 차별과 적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Brown, 2002). 따라서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집단간 차별과 적대감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집단간 접촉보다 사회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집단간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고려되는 방법은 인지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주로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방법이다. 인지적 변화 방법 가운데 먼저, 재범주화(recategorization) 방법은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다시 묶는 방법이다. 즉 집단성원들의 사회정체성의 범주를 현재 범주보다 더 상위 위계에 두게 하는 인지적인 변화 방법으로, 상위집단의 소속감을 공유하도록 강조할 수 있다(Dovidio, Gaertner, Isen, Rust, & Guerra, 1998; Gaertner, Dovidio, Anastasio, Bachman, & Rust, 1993).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인간으로 생각하도록 범주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차범주화(cross-categorization)는 현재 내외집단간에 긴장을 일으키는 집단의 정체성에 관련없는 집단이나 범주에 대하여 집단 정체성을 지니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성희롱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이기보다 세력이나 힘이 강한 사람의 약한 사람에 대한 횡포로 보도록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는 외집단원들을 전형적인 집단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보게 하여 집단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Brewer, Brown, 1998). 예를 들면 두 집단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과제에 주목하게 되고 서로 친숙해지게 만들 수 있다(Bettencourt, Brewer, Croack, & Miller, 1992).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외집단 동질성 편파(outgroup homogeneity bias)가 줄어들게 되고, 외집단에 관하여 단합된 한 집단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Wilder, Simon, & Faith, 1996).

이 방법은 집단정체의 특출성(salience)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응용하여 Gaertner, Mann, Murrell, 및 Dovidio(1989)는 범주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상위범주에 소속된 것으로 지각하거나 개별적 개인으로 지각되게 하는 조작에 따라서 범주와 관련된 내집단 편향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6명을 두 집

단에 나누어 할당하거나 한 집단으로 작업하게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작하고 인지적 표상을 알아본 결과에서, 조작에 따라 참가자들이 범주화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에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남녀간에 범주인식을 조작하여 범주화, 재범주화, 탈범주화한 조건들에서 남녀집단 구성원의 상호인상평가와 서로에 대한 태도로 내집단편애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에서 재범주화와 탈범주화조건에서 범주화 조건에 비교하여 내집단편애가 감소하였다(이해경·이수원, 1994).

그런데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인지적인 변화방법도 가능하다. 남녀 차별을 빚어내는 고정관념은 인지적인 절약의 이점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또한 한번 활성화되면 미묘하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의 활성화를 피하려하기보다, 내외집단 편향을 억제하는 사고를 부가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Devine(1989)은 인종 편견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결과에서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목록을 쉽게 떠올리는데, 편견이 낮은 백인들도 편견이 높은 백인들처럼 정확하게 고정관념을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백인들은 내외집단 편향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Devine(1989)에 따르면 편견이 낮은 백인들은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후에 부정적 사고를 억제하였고, 그 결과로 내외집단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 반면 편견이 높은 백인들은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부정적 사고를 억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내외집단 편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자신의 평등주의적 가치와 편견 사이의 괴리에 대해 인식하고 평등주의적 가치를 깨달아 이에 맞추어 여성 집단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밖에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성별사회정체성에 선행하는 사회구조적인 변인들을 다르게 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양성 평등지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사회정체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서 집단간 비교 상황의 특출성, 집단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지위의 차이, 집단간 상대적 지위의 안정성, 합법성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 등 이른바 사회구조 요인들이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한덕웅, 2002). 또한 남녀관계에서 성별사회정체성에 선행하는 사회구조 변인들-안정성, 합법성 등-에 관

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김금미·한덕웅, 2001). Ellemers(1993)는 정적사회정체성의 획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변인들로 집단 경계의 침투가능성, 집단의 지위, 대안적 집단 멤버쉽, 안정성, 합법성 등을 지적하였고, 동료학자들과 공동으로 이 요인들의 관계를 검증한 바 있다(Ellemers, Van Knippenberg, & Wilke, 1990; Ellemers, Wilke, & Van Knippenberg, 1993). 따라서 다음에는 집단지위 인식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성의 지위와 남녀평등지향성의 지각이 여성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가운데 합법성, 안정성에 따라서 양성평등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해 보기로 한다.

2. 남성의 남녀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증연구

1) 이론적 배경

(1) 성별에 따른 지위와 양성평등지향성 지각의 차이

지위의 정의 : Tajfel과 Turner(1986 : 19)는 집단의 지위를 평가차원에서 비교한 집단의 상대적 위치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실제 사회상황으로 일반화될 때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귀족 계급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은 지위라는 데에는 동의하더라도 평가의 비교차원에서 더 우등하거나 열등하다기보다는 세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위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ullen, Brown과 Smith(1992)는 ‘지위를 한 집단이 지니는 일반적인 명성 혹은 세력’이라고 보았고, Levine과 Moreland(1998)도 ‘집단의 지위 체계가 성원들간의 세력의 분배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원들간의 지배력, 명예, 그리고 통제력에서 안정된 차이들이 집단의 지위 관계 혹은 권위 관계를 반영한다’(Forsyth, 1999 : 131)고 보아 지위가 세력을 포함하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 예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 범주에서 지위를 다룰 때에는 세력이나 재산 등의 자원 및 물건의 소유와 완전히 별개로 구분하기보다는 Tajfel의 기본 정의는

받아들이면서도 ‘비교의 평가 차원’의 의미를 세력이나 재산 등의 다른 차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Jetten, Spears, Hogg과 Manstead(2000)도 지위에 대해서 ‘사회나 문화의 사회적 위계에서 집단의 위치’로 정의했다. 더 구체적으로 ‘가치있는 비교차원에서 집단의 위치에 연합된 권위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정의는 관련된 외집단에 대하여 지니게 되는 위치라는 의미에서 차원 특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흑인, 여성 혹은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한 지위에 처해있고, 백인이나 남성들은 우월한 지위에 처해있다고 보았다.

한편, Jones(1972 : 117 : Sachdev & Bourhis, 1987에서 재인용)는 집단간 관계에서 세력을 ‘다른 집단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도 지위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대 집단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차원의 우위라는 면에서 지위의 우위로 볼 수 있다. 또한 Sachdev와 Bourhis(1991)의 연구에서 지위와 세력의 조작점검 결과에서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위와 세력을 독립적으로 지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성별에 관련한 상대적인 지위 지각은 ‘다른 성별집단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위계에서 집단의 상대적 위치’로 지각됨에 따라 성별에 관련하여 지위와 세력이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etten 등(2000)에 따라 지위를 ‘사회나 문화의 사회적 위계에서 집단의 위치’로 정의하였다.

지위의 성차 :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지난 50년 동안 신분상의 족쇄와 불평등의 상태에서부터 급속한 시간 내에 상당한 정도의 해방을 맞보았으나 워낙 그 구속이 오래되고 집요한 것이어서 아직도 봉건적인 신분의 제약으로부터 탈피되어 완전한 성의 평등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박원순, 1999). 즉, 아직도 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Eagly(1997)도 집단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각 집단들의 세력과 지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남성과 여성이 업무 능력이 동등하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보수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김금미(2001)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

가 높다고 지각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공적, 제도적으로 남녀는 평등하다고 주장되고 평등 이념이 교육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상호간의 지위 인식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양성평등지향성의 성차 : 김양희와 정경아(2000)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남녀평등의식을 비교한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남녀평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가 조사한 남녀평등실천지수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남녀평등의식이 약했다(한겨레신문(1999. 8. 11)).

Ellemers, Doosje, Van Knippenberg 및 Wilke(1992)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내집단편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집단의 상대적 규모, 지위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의 효과를 알아본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집단간 경계가 모호하여 집단간 침투가 가능하면 높은 지위 소수 집단의 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성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또한 Mullen, Brown 및 Smith(1992)의 통합분석(meta analysis) 결과와 Sachdev와 Bourhis(1987, 1991), 그리고 Ellemers(1999)등의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높은 지위의 집단 성원이 낮은 지위의 집단 성원보다 내집단편애를 더 많이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지위가 높고 이에 따라 더 높은 내집단편애를 보이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지향성으로 남성의 내집단편애를 측정하고자 하므로 여성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지향성이 낮으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정체성이론의 가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한 결과들을 정리해보자. 집단간 관계에서 높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존심의 향상으로 인하여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낮은 지위의 외집단을 차별하려고 한다. 이 때 만약 외집단에 차별행동을 보이는 상황이 합법성을 지닌다면 외집단 차별을 정당화하고 더 차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지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지위와 양성평등지향성의 관계에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낮은 지위 혹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높은 지위 혹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의 연구를 예로 들면, 남녀의 양성평등지향성은 양성평등 결과에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남성(김금미, 2001)의 양성평등행동이 양성평등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집단간 관계에서 지위가 높고 양성평등지향성이 낮은 남성들이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경향성을 어떤 조건에서 보이는지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2)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집단지위의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합법성과 사회정체성의 관계에서, Ellemers(1993)의 주장과 같이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이면 합법적이지 않을 때보다, 특히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 내집단에 더 정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실증연구들에서는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과가 불명확하다. Mummendey, Mielke, Wenzel 및 Kanning(1996)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집단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지 않았고, 결과에서도 이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Mummendey 등(1999b)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내집단 동일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가정했으나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합법성이 정체성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내집단동일시가 매개하리라고 명시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사회정체성모델 검증 및 상대박탈이론과의 통합모델 검증에서도 합법성에서 사회정체성으로 향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있다(Mummendey et al., 1999a). 종합해 보면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증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으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근거를 다시 정리해 보자.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현재 처한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남성범주에 동일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이 경우에 자기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한덕웅, 2002; Karasawa, 1991; Tajfel,

1982).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의 경우에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명제를 집단 지위의 합법성 지각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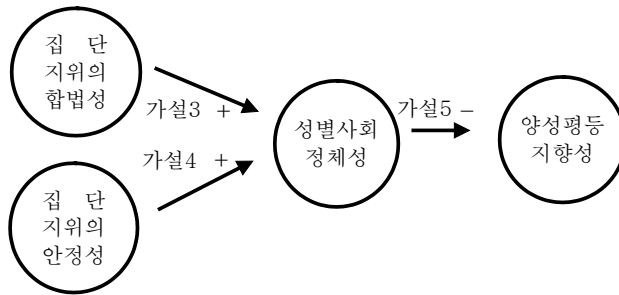
집단지위의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안정적인 집단간 관계는 현재와 다른 대안적인 지위 구조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고 불안정한 집단간 관계는 대안적 지위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Ellermers, 1993). Mummendey(1999b)등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내집단 동일시(사회정체성)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경쟁과 같은 집합적 전략을 촉진시키며, 불안정성은 내집단 동일시를 약화시키고, 개인적 이동과 같은 개인적 전략을 촉진시키는 직접적 경로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에서 안정성은 내집단동일시에 .12의 경로계수를 보이고, 상위범주화와 개인적 이동에서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Mummendey(1999a)등의 연구 2에서는 안정성 변인이 동일시에 .22의 경로계수를 보였고, 개인적 이동과 부적으로, 실제적 경쟁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Mummendey (1996)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안정성이 동일시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정체성과의 관계에서 1996년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을 모두 사용했으나 1999년 연구들에서는 인지적 정체성(연구a-3 문항/ 연구b-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기인한 차이일 수 있다. 또한 Mummendey 등의 연구에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보면 안정성이 관련된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이론에 근거하여 몇몇 연구자들이 주장하지만, 일관되게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현재 지위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면 자신이 속한 남성집단에 동일시하여 자기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은 자신의 지위가 안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을 것이다.

(3) 본 연구의 가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제안한 사회구조요인들을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성을 예견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성별집단간 관계에서 남성의 지위합법성과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 가설 1. 지위에 대한 성차 : 남성이 여성보다 소속 성별 집단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 것이다.
- 가설 2. 양성평등지향성의 성차 : 남성이 여성보다 양성평등지향성이 더 낮을 것이다.
- 가설 3.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 지위의 합법성 효과 : 남성이 집단 지위의 합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 4.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 지위의 안정성 효과 : 남성이 집단 지위의 안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 가설 5.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성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의 효과 :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지향성 수준은 낮을 것이다.
- 이 가운데 가설 3, 4, 5 즉,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녀관계의

지위에 대한 안정성 및 합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시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지향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가설들을 공변량구조모형으로 설정하고 공변량구조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변인들간의 상호영향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조사의 대상

전국 6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남녀 학생 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심리학개론을 듣는 학생들에게 실시하였고, 남성은 남성용 설문지를, 여성은 여성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위와 양성평등지향성의 성차 분석에는 남녀의 자료를 사용하고, 변인간 관계 검증과 모형검증에는 남성용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남녀별로는 남자 352명(46.32%), 여자 408명(53.68%)이 참여하였다. 남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7명(30.57%), 경기 33명(9.43%), 강원 22명(6.29%), 충청 35명(10.00%), 전라 40명(11.43%), 경상 110명(31.43%), 기타 지역 3명(0.86%)에 해당한다. 학년별로는 1학년 210명(60.34%), 2학년 72명(20.69%), 3학년 36명(10.34%), 4학년 30명(8.62%) 이었다. 여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87명(21.38%), 경기 39명(9.58%), 강원 35명(8.60%), 충청 33명(8.11%), 전라 66명(16.22%), 경상 142명(34.89%), 기타 지역 3명(0.74%)에 해당한다. 학년별로는 1학년 247명(60.99%), 2학년 107명(26.42%), 3학년 18명(4.44%), 4학년 33명(8.15%) 이었다.

(2) 성별사회정체성, 지위, 합법성, 안정성, 양성평등지향성의 측정

성별사회정체성 :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국내외 연구들에 포함되었던 문항을 수집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집단심리를 전공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3인이 각 문항들에 대해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에 적절한 정도를 1(전혀 적절하지 않음)~5(매우 적절함)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이 평정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총 47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문항들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문항들 가운데 긍정적 문항은 36문항이었고, 부정적 문항은 11문항이었으며,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들에 대해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느끼거나 행동하는 바’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지위, 합법성, 안정성, 양성평등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7점 척도에 평정하였다(0-전혀 그렇지 않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 4-약간 그렇다, 5-상당히 그렇다, 6-매우 그렇다).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요인 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17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82%를 설명하였는데 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내집단의 성원으로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지닌 문항들도 이 요인에 속하였다. 따라서 Ellemers, Kortekaas, Ouwerkerk(1999)과 일관되게 ‘집단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다. 이 요인은 역전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단몰입의 점수가 클수록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 성별사회정체성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총점 - 문항 상관	자기 문항 제거시 α계수	요인 부하량	공통분
집단 몰입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R)	.716	.732	.818	.691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싫다(R)	.674	.743	.752	.648
	내가 남성이 아니었다면 행복했을 것이다(R)	.619	.762	.668	.492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R)	.579	.776	.644	.420
	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느낀다(R)	.401	.826	.469	.223
		고유치 2.46 α계수 .807			
집단 자존 심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내가 남성이라는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반영해 준다	.611	.743	.670	.507
	나는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551	.756	.666	.482
	나는 내 자신이 남성답다고 생각한다	.568	.752	.649	.436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547	.757	.615	.402
	나는 내 자신이 남성임을 스스로 내세운다	.510	.766	.577	.346
집단 범주 화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	.475	.776	.533	.305
		고유치 2.55 α계수 .791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과 쉽게 믿는다	.616	.682	.735	.552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	.566	.695	.680	.464
	나와 절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527	.707	.602	.389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남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454	.728	.547	.315
	나는 다른 남성들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460	.726	.524	.304
		.344	.752	.371	.196
		고유치 2.16 α계수 .752			

제 2요인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긍지, 내집단에 대한 의미 부여, 중요성 지각 등으로 집단 소속에 관련된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집단자존심’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79였다.

제 3요인은 내집단의 성원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은 정도, 외집단 성원들에 비하여 내집단 성원들을 쉽게 믿음, 남성집단에 대한 애착 등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를 나타낸다. 따라서 ‘집단범주화’로 명명하였고, Ellemers 등(1999)의 자기범주화 요인과 내용이 일관된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75였다.

지위 : 지위와 관련한 6개 문항은 Tajfel과 Turner(1986 : 19)가 지위를

평가의 비교 차원에서 집단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하거나 Jones(1972 : 117 : Sachdev & Bourhis, 1987에서 재인용)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 바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제작하고 Mummendey(1996)가 사용한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들도 참조했다. 문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집단 지위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도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 지위의 신뢰도계수는 .93이었고,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한 개였으며 고유치는 4.28이었다.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지위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합법성 : 합법성은 집단의 현재 지위에 대한 정당성 지각(Ellemers, 1993)으로 정의하였다. 합법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집단 지위에 대한 합법성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도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의 지위의 합법성을 이루는 문항들의 신뢰도계수는 .67였고,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은 한 개였고, 고유치는 1.42이었으며,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한 요인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지위의 합법성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정성 : 안정성은 집단간 지위관계에서 현재와 다른 지위구조가 고려될 수 없는 정도로 정의하였다(Ellemers, 1993).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이 요인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도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의 지위의 안정성의 신뢰도계수는 .72였고,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한 개였으며, 고유치는 1.44였다.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지위의 안정성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지위, 합법성, 안정성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 성 개 념 및 문 항	총점 - 문항 상관	자 기 문 항 제거시 α계수	요 인 부하량	공통분
지 위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	.902	.896	.947	.896
현재 사회상황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지배적 세력을 지닌다	.889	.897	.931	.868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주도권을 지닌다	.875	.900	.919	.845
현재 사회 상황에서 남성들이 남성들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여성들을 좌지우지한다	.780	.913	.808	.653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가족법상에서 지위가 월등하다	.760	.915	.779	.607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516	.943	.529	.280
고유치 4.28 α계수 .926				
합 법 성				
직장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하다	.471	.573	.614	.377
나도 성별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R)	.436	.598	.553	.306
가정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442	.588	.550	.303
현재 남녀간 지위 관계는 여성과 남성의 행동과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379	.619	.483	.233
여성도 남성만큼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다(R)	.335	.636	.449	.202
고유치 1.42 α계수 .669				
안 정 성				
지금과 같은 남성과 여성의 세력 관계가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595	.569	.778	.605
현재 남성과 여성의 지위 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571	.588	.740	.548
현재 남성과 여성의 세력 관계는 노력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본다(R)	.459	.729	.538	.290
고유치 1.44 α계수 .718				

양성평등지향성 : 양성평등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Mummendey 등 (1996)의 정의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의 현재 시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제적 경쟁전략과 사회적 경쟁전략을 측정하는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성평등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성별사회정체성의 분석방법과 동일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92%를 설명하였는데 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의 문항들은 여성부 신설, 국회의원 비율, 공무원 여성 할당제

등에 대한 찬반 태도 및 실제 행동 표출과 같은 실제 행동과 행동에 가까운 태도들이므로 ‘양성평등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79였다.

<표 3> 양성평등지향성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 성 개 념 및 문 항	총점- 문항 상관	자기 문항 계거시 α 계수	요 인 부하량	공통분
양 성 평 등 행 동	여(남)성과 남(여)성의 동등한 취업기회를 위하여 공무원여성할당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560	.758	.674	.457
	여성과 남성대졸자의 초임이 동등해지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업체에게 촉구하는대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611	.752	.656	.508
	국회의원의 남녀비율이 전체 남녀 성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536	.762	.616	.385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취업 기회를 누리도록 정책이 변화 되어야한다	.563	.764	.599	.469
	남녀 평등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부의 신설은 바람직하다.	.468	.771	.557	.311
	나는 기업에서 같은 경력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주장하는 편이다	.493	.770	.533	.408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436	.776	.482	.259
	자녀가 부모 중 누구의 '성씨'도 따를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야한다.	.401	.785	.392	.237
	고유치 2.91 α 계수				.791
가 정 양 성 평 등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면에서 아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	.625	.686	.779	.650
	조상에서제사를지내는책임이아들에게 있으므로아들을낳는 편이 낫다(R)	.646	.680	.766	.646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있다(R)	.555	.712	.546	.357
	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R)	.530	.721	.523	.375
	남(여)성이 여(남)성보다 가정 유지에 대한 책임을 더 지고 있다(R)	.323	.790	.331	.138
	고유치 2.26 α 계수				.763
사 회 양 성 평 등	실제로 많은 면에서 여(남)성은 남(여)성보다 더 낫다.(R)	.470	.507	.617	.390
	여(남)성은 남(여)성 보다 더 이성적이다.(R)	.423	.541	.615	.413
	어떤일에대한책임자를정할때남(여)성보다는여(남)성에게더믿음이 간다(R)	.466	.510	.595	.358
	남(여)성들이 잘 살게 될수록 상대적으로 여(남)성들이 잘 살기 어렵다(R).	.279	.655	.353	.151
	고유치 1.48 α 계수				.624

제 2요인은 대체로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즉 가정에서 딸과 아들에 대한 관점, 가족내 성원의 책임과 역할에서의 양성평등의식 문항들이었다. 그러므로 ‘가정양성평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다. 이 요인은 역전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정양성평등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 3요인은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즉 능력, 이성적 사고, 경제활동 능력 등 사회에서 남녀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양성평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62였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AS 8.01과 LISREL 8.12를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구성개념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의 일개념성을 확인하였다. 지위와 양성평등지향성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이분석하였고,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들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들과 이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남성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을 찾기 위해서 최소자승법에서 정상분포를 가정하는 GL(generalized least square method)법을 사용하였다. GL법은 정상분포에 가정을 두는 가중치 부여 방법으로서 측정변수들이 다변량정상분포의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 GL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형의 부합도는 다변량정상분포의 위반에 영향을 덜 받는 일반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비표준부합치(NN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 근접오차 (RMSEA)와 비교합치도(CFI)가 함께 사용되었다. 분석의 자료로는 공변량행렬을 이용하였다.

3) 결 과

(1) 양성평등지향성, 지위, 합법성, 안정성, 성별사회정체성에서 남녀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한 양성평등지향성, 지위에서의 남녀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분석 결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지지).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양성평등지향성이 더 낮았다(가설 2 지지). 부가적으로 합법성, 안정성, 성별사회정체성에서의 남녀차이분석 결과에서는, 현재 지위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비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의 지위가 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성별사회정체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집단의 지위가 높고 양성평등지향성이 낮은 남성을 대상으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남성의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하였고, 단순상관계수들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양성평등지향성은 합법성($r=-.364$), 성별사회정체성($r=-.359$)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즉 남성이 지위에 대한 합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지향성은 낮았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과 합법성($r=.319$), 안정성($r=.107$)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지위에 대한 합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안정성이 높을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합법성과 양성평등지향성의 부적 상관이 유의함에 따라 모형에 합법성과 양성평등지향성의 경로를 추가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표 4> 구성개념 측정치들간의 남녀 차이 분석

		여 성	남 성	F 값
지	위	1.76(.81)	4.03(.76)	1540.74***
합	법 성	3.32(.50)	3.34(.51)	3.62+
안	정 성	2.87(.68)	2.64(.65)	7.31*
성	별 사회 정 체 성	3.73(.54)	3.89(.56)	16.31**
양	성 평 등 지 향 성	4.01(.54)	3.50(.70)	128.50***

주. ()는 표준편차, + $p<.10$, * $p<.05$ *** $p<.001$

<표 5> 남성의 구성개념 측정치들간의 상관분석 결과

	합법성	안정성	성별사회정체성
	.069	-	
안정성	.319**	.107*	-
성별사회정체성			
양성평등지향성	-.364**		-.098
	-.359**		

주. + $p<.10$, * $p<.05$ *** $p<.001$

<표 6> 합법성, 안정성에 의한 성별사회정체성의 중다예언

변 수	df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표준회귀 계수(β)
합법성	1	.343	.055	6.17***	.313
안정성	1	.074	.043	1.72+	.087

주. + $p<.10$, * $p<.05$ *** $p<.001$

(3)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의 원인 및 결과 변인들간의 중다회귀분석

- ① 합법성, 안정성과 성별사회정체성 : 사회구조변인들이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합법성과 안정성은 성별

사회정체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므로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 지위의 합법성(가설 3)과 안정성(가설 4)의 관계가 지지되었다. 즉, 남성이 자신의 현재 지위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성별에 대한 사회정체성이 높아졌다. 또한 남성의 지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성별에 대한 사회정체성이 높아졌다. 합법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성별사회정체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11.09%였다. 두 예측변인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은 합법성($\beta=.313$, $p<.001$), 안정성($\beta=.087$, $p<.043$)의 순으로 합법성의 영향력이 더 컸다.

- ②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지향성 :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지향성에 유의하게 영향($\beta=-.359$, $p<.001$)을 주었으므로 양성평등지향성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의 관계에 관한 가설(가설 5)이 지지되었다. 즉 남성은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지향성이 더 낮아졌다.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지향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12.90%였다.

(4) 공변량구조모형의 검증

가설에서 제시된 구성개념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간의 상호영향력을 측정하는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따른 공변량구조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표 8에 가설모형의 결과로서 제시하였다. 표 7의 경로계수를 보면 안정성→성별사회정체성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합법성→성별사회정체성, 성별사회정체성→양성평등지향성은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였다. 가설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GFI는 .907, NFI는 .915, NNFI는 .927, CFI는 .940으로 거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90을 넘고, AGFI가 .90에, RMSEA가 .05에 가까운 부합도 지수를 보였다.

<표 7>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모형	합법성→ 성별사회정체성	안정성→ 성별사회정체성	성별사회정체성→ 양성평등지향성	합법성→ 양성평등지향성
가설모형	.536*	.022	-1.420*	
수정모형	.577*	.102*	-.217*	-.822*

<표 8> 가설모형, 수정모형의 합치도 지수

	χ^2	GFI	AGFI	NFI	NNFI	RMSEA	CFI	고정지수
가설모형	229(df=74)	.907	.868	.915	.927	.07	.940	
수정모형	206(df=73)	.916	.879	.923	.936	.07	.949	합법성→ 양성평등지향성

그런데 가설에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상관분석에서 합법성이 양성평등지향성에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이 경로를 공변량구조모형에 포함시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표 7의 수정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법성→성별사회정체성, 성별사회정체성→양성평등지향성의 유의한 경로계수를 포함하여, 새로 추가한 합법성→양성평등지향성의 경로와 가설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안정성→성별사회정체성의 경로가 추가로 유의하였다. 이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는 표 8에 수정모형의 지수로 제시되었다. GFI는 .916, NFI는 .923, NNFI는 .936, CFI는 .949으로 거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90을 넘고, AGFI가 .90에, RMSEA가 .05에 가까우므로 자료가 가설에 부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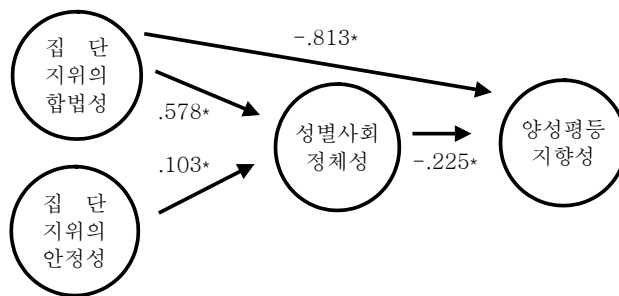
그러나, 위와 같이 두 모형이 모두 양호한 부합도 지수를 보이므로 모형의 상대적 우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각 모형간에 단계적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χ^2 검증 결과에서 가설모형보다 수정모형이 우수하였다($\chi^2=23$, $df=1$, $p<.001$). 따라서 수정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공변량구조분석의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높다고 볼수록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고, 성별사회정체성

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지향성이 낮아졌다. 또한 남성으로서 집단 지위의 합법성이 높다고 볼수록 양성평등지향성은 낮아졌다.

III. 결 론

남녀간의 편견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편적인 심리학적 방법들과 아울러 집단간 관계를 다루기 위한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몇몇 책략을 제안하였다. 즉, 양성평등을 위하여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의존적인 긴밀한 접촉을 하고 또한 그 사회의 규범이 평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접촉이 필요하고, 특별히 사회정체성이론에서 볼 때 재범주화, 탈범주화, 교차범주화와 같은 사회정체성에 관련된 인지적인 변화 책략이 유용하다. 또한 사회정체성 자체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선행사회구조요인을 다루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성별관계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한 점이 본 연구에서 하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성별집단간 관계에서 남성의 지위합법성과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수정모형)

실증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고(가설 1), 양성평등지향성이 더 낮았다(가설 2). 또한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지니는 상대적인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가설 3), 그리고 남성의 지위가 장래에도 불변하리라고 생각할수록(가설 4),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자신의 남성 성별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경향성은 낮았다(가설 5). 최종적으로, 남성들의 잠재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 4, 5를 포함한 모형을 공변량구조분석한 결과에서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전반적 부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했으나, 상대적인 우세성 검증 결과에서 합법성과 양성평등지향성간의 관계를 추가한 모형이 최종적으로 더 나은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지금까지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부적인 사회정체성을 관리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열등한 지위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정체성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 집단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조건을 알아낸 결과를 얻었다는 데에도 이론적 측면의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부의 신설 이후 양성평등 개념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을 위촉하고 한국남녀평등교육진흥원을 신설하는 현 시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일관된 방향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점과 이에 집단간 관계 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을 적용한 점도 본 논문의 중요한 의의이다.

특히 실증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실제로 남성들에게 양성평등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의 강의나 여성부의 정책, 혹은 사회운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시사된다. 즉 남성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먼저 남성으로서의 성별사회정체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남녀집단간 지위의 비합법성과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나 강의를 효율적일 것이다.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은 남성의 지위가 합법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남성의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지각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녀지위의 비합법성에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머무르는 것의 부당성, 남성의 사회적 지위의 비합법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지위의 불안정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현재 지위로 있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 남성이 현재 지위를 더 방어할 수도 있으나 이미 현재 남성의 지위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각한다면 방어하기보다는 성별사회정체성을 낮출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위한 강의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남성에게 과거·현재·미래에 남성 지위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논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다회귀분석의 상대적인 중요성으로 보아 안정정보다는 합법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동일한 시간이 할애된 강의나 동일한 비용이 사용될 정책에서, 남녀의 지위차이가 얼마나 비합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지에 관하여 다루는 내용이, 안정성을 주로 다루는 내용보다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에게도 적용된다. 김금미·한영석(2002)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에도 양성평등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합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합법성은 성별사회정체성을 경유하지 않고 양성평등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양성평등의식과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녀간의 상대적 지위의 비합법성 및 부당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은 한 장소에서 여성과 남성의 혼성 대상으로 강의할 때 합법성을 이용하여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 실제로 응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안정성과 비교하고 양성평등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을 생각하여 합법성을 강조하는 책략을 사용할 때 정부, 여성단체 혹은 개인들이 같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서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남녀차별의 결과로 남녀가 분화되었다기 보다는 남녀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녀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Tajfel의 견해에 따르면 남녀가 이미 다르다고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별은 시작된다. 그

러므로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재범주화, 탈범주화, 혹은 교차범주화 시키는 방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각하고 있는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능에서의 성차, 공격성의 차이 등에 대하여는 그 차이를 인정하되 그 의미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므로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여, Devine(1989)의 견해와 같이 내외집단 편향을 억제하는 사고를 부가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향후에 남녀간의 집단간 관계에서 남녀 성원들의 집합행동에 사회정체성이론과 아울러 상대박탈이론들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적용하면 남녀차별이나 양성의 동등추구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Brown, 2000). 예를 들어 Mummendey 등(1999b)은 서독인에 대한 동독인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이론과 상대박탈이론의 접맥을 시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간에 경험하는 감정에 관하여 상대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의 통합이 시도된 바 있다(박군석·한덕용, 2002). 장차 남성과 비교해서 상대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대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을 통합한 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남자대학생은 세대와 직업의 측면에서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래에는 대학생 이외에 여러 세대의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과모형에 대해서 교차타당화를 하지 못하여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장차 교차타당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양희·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3쪽~44쪽.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1쪽~33쪽.
- 한겨레신문 (1999. 8. 11).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다.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편애-성별집단과

-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금미 ·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6(2), 15쪽~38쪽.
- 김금미 · 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7(3), 1쪽~20쪽.
- 김금미 · 한영석 (2002).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7(2), 1쪽~15쪽.
-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해경 · 이수원 (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 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8(2), 108쪽~123쪽.
- 박군석 · 한덕웅 (2002). 영호남인의 상대박탈에서 사회구조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4쪽~253쪽.
- 박원순 (1999). KOREAN WOMEN'S STATUS UNDER THAT LAW.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Development", 26쪽~27쪽.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쪽~91쪽.
- 한덕웅 (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Ⅱ) :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0(1), 39쪽~84쪽.
-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시그마프레스.
- <http://www.demos.or.kr/issue>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 Addison-Wesley.
- Blanz, M., Mummendey, A., Mielke, R., & Klink, A. (1998). Responding to negative social identity : a taxonomy of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 697-729.
- Brewer, M. B., & Miller, N. (1996). *Intergroup Relations*.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554-594). New York : McGraw-Hill.
- Brown, R. (2002). *Group Press : Dynamics within and between groups*(2th) : Oxford Blackwell.
- Brown, R. (2000). Social identity theory : past achievements, current problems and future challeng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 745-778.
- Bettencourt, B. A., Brewer, M. B., Croack, M. R., & Miller, N. (1992). Cooper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 The role of reward structure and social ori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 : 301-309.
- Cook, S. W.(1978). Interpersonal and attitudinal outcomes in cooperating interracial group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12 : 97-113.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 5-18.
- Devine, P. G. (1995). Prejudice and out-group perception. In A. Tesser(Ed.), *Advanced social psychology*(467-524). New York : McGraw-Hill.
- Dovidio, J. F., Gaertner, S. L., Isen, A. M., Rust, M., & Guerra, P. (1998). Positive affect, cogni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C. Sedikides, J. Schopler, & C. A. Insko(Eds.), *Intergroup cognition and intergroup behavior*(337-366). Mahwah, NJ:Erlbaum.
- Eagly, A. H. (1997). *Sex Different in Social Behavior :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 Erlbaum.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 27-57). Chiches-ter : Wiley.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nd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 371-389.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1997). Sticking together or falling apart : In-group identification as a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group commitment versus individual mo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 617-626.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 Wilke, J. (1990). The influence of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on strategies of individual mobility and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 233-246.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 766-778.
- Forsyth, D. R. (1990). *Group Dynamics* (2nd Ed.).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Gaertner, S. L., Mann, J. A., Murrell, A. J., & Dovidio, J. J.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 239-249.
- Gaertner, S. L., Dovidio, J. F., Anastasio, P. A., Bachman, B. A., & Rust, M. C. (1993).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 Recategor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 : 1-26.
- Hogg, M. A., & Abrams, D. (1990). *Social Identifications :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Hewstone, M. and Brown, R. J. (eds) (1986). *Contact and Conflict in Intergroup Encounters*. Oxford : Blackwell.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 (1996).

-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 241-254.
- Jetten, J., Spears, R., Hogg, M. A., & Manstead, A. S. R. (2000). Discrimination constrained and justified : Variable effects of group variability and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 329-356.
- Karasawa, M. (1991). Toward and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 293-307.
- Lalonde, R. N., & Silverman, R. A. (1994). Behavioral preferences in response to social injustice : The effects of group permeability and social ident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 78-85.
- Levine, J. M., & Moreland R. L. (1998). Small group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s. : 415-469). McGraw-Hill.
- Messick, E. M., & Mackie, D. (1989).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0 : 45-81.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 103-122.
- Muller, N. E., & Brewer, M. B.(1984) *Groups in Contact :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a).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 229-245.
- Mummendey, A., Klink, A., Mielke, R., Wenzel, M., & Blanz, M. (1999b).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group

relations and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 Results from a field study in Ea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 259-285.

- Mummendey, A., Mielke, R., Wenzel, M., & Kanning, U. P. (1996). Social identity of East Germans :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challenge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In G. Breakwell, & Breakwell, & E. Lyons(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 Social psychological analyses of social change* (: 405-428).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 65-85.
- Tajfel, H. (1978). Interindividual behavior and intergroup behavior.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New York : Academic Press.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 7-24). Chicago : Nelson-Hall.
- Taylor, D. M., & Moghaddam, F. M. (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 Praeger.
- Wilder, D. A., Simon, A. F., & Faith, M. (1996). Enhancing the impact of counterstereotypic information : Dispositional attributions for devi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 276-287.

The Effect of Legitimacy, Stability, and Gender Social Identity on Gender Equality Orientation of Men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al identity theory

Keummi Kim* · Youngseok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that include the effects of group legitimacy, stability and gender social identity on gender equality orientation of men. In order to test the fitness of this model and each detailed path,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352mal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is model was well-fitted to the data. Among the specific examinations of the relationship, most of the hypotheses were confirme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effect of group legitimacy and stability, gender social identity increased. An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gender social identity, gender equality action decreased. This result shows usability of social identity theory in male-female inter-group relationship.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 words : social identity theory, legitimacy, stability, gender social identity, gender equality orien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